

일 요 일 의 대 동 강 반



평양의 젓줄기이며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비껴담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그 경치 하도 뛰어나 옛날 외국인의 한 사신이 《천하제일강산》이라는 붓글까지 남긴 일화를 전하는 대동강반이 오늘은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히 꾸려져 가는 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에 넘친 사람들의 웃음소리 흘러넘친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과 평양시민들의 여름철생활은 뽕뽕 뽕뽕 수 없이 이어져있다.
일요일의 대동강반은 나름대로의 취미와 정서에 맞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남녀로소들로 흥성인다.
즐겁고 유쾌하게 휴식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로 일요일의 대동강반은 해저무는줄 모른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범식

속 편 제 의 적 인 호 상 관 계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레절있게 대하고 좋게 말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 《가는 방망이 오는 흥두께》
이런에서 방망이로 치면 저편에서는 그보다 몇배나 큰 흥두께로 때린다는 뜻으로 남을 해치면 그보다 몇배 더한 보복이 돌아온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
◆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참하다면 좋아한다.》
고슴도치새끼는 털가시가 세게 돌아나서 곱다고 할 것이 못되나 그래도 곱다고 칭찬하면 어미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누구나 자그마한 것이라도 칭찬해주면 다 좋아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
◆ 《곱게 살면 갇을 밤을 날이 있다.》
바른 양식을 가지고 똑바르게 살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뜻.
◆ 《덕은 덕으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한다.》
공정하고 도리에 맞게 선의를 표시하는 사람은 선의로 대하고 원수는 원수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본사기자

꼬니는 우리 겨레가 옛날부터 즐겨늘던 오락이다. 꼬니판이나 그냥 맨땅위에 말을 그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교누》, 경상도와 제주도에 《꾼》이라고 부르는 등 여러가지 방언으로 불러주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꼬니에는 우물꼬니, 샘꼬니, 강꼬니, 밭꼬니, 네줄꼬니, 여섯줄꼬니, 포위꼬니, 장수꼬니, 패랭이꼬니 등을 비롯하여 그 종류도 많다. 우물꼬니에서 첫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는데로부

조신민요는 선물이 유순하고 아름답고 우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뿐 아니라 깊은 정서로 감동을 자아낸다.
조신민요는 선물 형식에서 우리 겨레의 높은 음악적재능이 깊이 스며있으며 음악 언어의 민족적특성을 뚜렷이 살

감동을 자아내는 조선민요

사 하

탕 평 체 의 유 래 (1)

글 김 복 련 , 그림 김 윤 일

이 나라 유구한 역사에 국토통합에 대한 민족의 염원이 이루어져 우리 나라가 처음으로 고려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우던 초기에 있는 일이다. 마천령기슭의 어느 한 산간마을에 정세성을 가진 로인네 일가가 살고 있었다.
어느해 봄이었다. 정로인은 겨우내 외양간에 드러누워있던 누렁왕소를 끌어내려 정성껏 빗질도 해주고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여름도 들뜬 떠다주었다. 누렁왕소가와삭와삭 먹어대는 소여물속에 풍기는 풍알들이 다문다문 섞여있다.
결에서 손가락을 입에 빼물고 감장눈을 깜빡이며 지켜보던 손자녀석이 호기심에린 목소리로 불쑥 물었다.
《할아버지, 이런 미련한 짐승에게도 콩을 먹이나요?》
감장눈알을 굴리는 손자의 물음에 정로인은 대뜸 성난 어조로 《예기, 조상어른을 보고 무슨 말버릇이야?》하며 달사달 발걸음을 썰었다.
《해해해, 소가 뭐 우리 조상이나요?》
손주녀석은 할아버지의 말이 우습다는 듯 깔깔거린다.

리고있다.
또한 굴림에서 다양한 가창기교로 민족적인것을 더욱 돋구어준다.
리듬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고 유한 조선장단의 흥취를 기묘하게 돋구어 민족적인 맛을 더욱

잘 살려낸다.
조선말의 특성에 맞게 곡조의 민족적이며 통속적인 가창도 잘 살려낸다.
오늘 공화국에서 조선민요는 민족음악 발전의 바탕으로 더욱 아름답게 꽃피어나고있다.
본사기자

국과 랑의 차이점

◆ 많은 경우 국은 한두가지 단순한 음식감을 쓰나 랑은 여러가지 음식감을 쓴다.
◆ 가랑방범에서도 서로 다르다.
국은 국저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잘게 썰지만 랑은 음식감들을 국저리보

다 굵고 큰 토막형, 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썰어 쓰거나 다져서 덩어리모양으로 만들어 쓴다.
경우에 따라서 음식감을 통것으로 쓰기도 한다.
◆ 국은 국물이 많고 주로 밥과 같이 내지만 랑은 국물이 적고 요리로 많이 쓰인다.
본사기자

기곤을 벌려 길가에 설치한다. 지나가던 메돼지나 산짐승이 이 울가미에 걸리면 빠져나오려고 마구 요동치게 된다. 그럴수록 울가미는 더욱 옥죄여들고 억지로 휘어놓았던 나무아지는 갈구리로부터 벗어져 강한 힘으로 퍼지면서 본래위치로 돌아간다. 이때 울가미에 걸린 짐승은 꿈쩍달짝 못하고 그대로 나무줄기에 메롱메롱 매달리게 된다. 정로인은 지난 겨울 이런 방법으로 여러마리의 짐승을 잡았었다.
이날도 그는 옹노에 걸린

모두들 배가 불쑥하게 랑껏 먹었다. 그런데 그 메돼지가 사달이 날줄이야. 이날 저녁 갑자기 만이가 배를 그러안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었다. 낮에 먹은 메돼지고기에 언천계 분명했다. 마침 모여온 사람들속에 누군가가 새우젓 한종지를 얻어다 먹었게 망정이지 큰일이 생길 뻔 했었다. 만이는 아마 그때 되게 혼쭐이 났던 모양이다. ...
《만이가 정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또 록두목이야말로 어느때나 잘 어울리는 식찬이거든요.》
이 말에 둘째가 두손을 내저으며 말하였다.
《형님두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우? 돼지고기를 그 만두다니요? 난 오히려 록두목 좋은줄은 모르겠던데요. 목침만치나 큼직큼직하게 툭 툭툭 썰어서 간장이나 특쳐서 먹는데 뭐가 맛있다고 그러시우.》
둘째가 어찌나 승이 나서 반대하는지 정로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발갈이든 김배기든 농사일에 들어하면 저마다 힘든 일은 들어 하겠노라고 서로 서로 위해주는 이질형제이건만 어쩔지 식성에선 영 판판이여서 종종 보게 되는 생경이질이다.
《글세 둘째말두 옳긴 하다마는 그렇다구 매 사람의 구미에 맞게 따로따로 음식을 만들어 내을수야 없지 않느냐? 더구나 너희들 어미도 외가에 가고 없는 때에 며느리에 혼자서야 어떻게...》
정로인이 섰듯 웅단을 내리지 못하고 난처한 기색을 보이자 젓은 손을 행주치마에 문대며 마당가에 나선 며느리가 조용히 말하였다.
《아버님, 그건 제가 알아서 조치하겠사오니 마음놓으십시오.》
《오—나, 어서 그래라.》
정로인은 두 아들과 함께 삼작문을 나섰고 며느리는 점심차비를 서둘렀다.



큼직한 메돼지 한마리를 어깨에 둘러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 이튿날이 음력 2월 초하루 일곤날인지라 정로인은 온 동네 늙은이, 젊은이들을 모두 청해다가 큰 잔치를 차렸다.

하고 정로인이 만이의 의향을 물자 그는 대뜸 이렇게 말하였다.
《차라리 록두목을 하는게 어떻겠어요? 록두야 원래 독풀이에 특효가 있는 난알이여서 약재로도 쓰이지 않아요?》